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4분기 발표”

법무부 등 내년부터 세종 이전... 공공기관 109개 감축
트라우마치유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흡수 통합

정부가 법무부와 경찰청 등 주요 부처를 내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하고,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통합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올 4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

을 밝혔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 제고하고,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한다.

발전공기업 5사도 하나로 통합

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본부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두 개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3~4개를 설치한다.

이날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도 포함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다. 2024년 7월 설립돼 광주와 제주에 센터를 두고 있는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됐다. 치유센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통합되는 부분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될 지 관심을 모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계획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9월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 시기에 대해 10월 이후를 언급해 정확한 시기를 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리면서 이전 계획 발표가 다시 앞당겨진 것은 아닌지 관심을 모았지만 최종적으로 올 4분기 중 발표 시기가 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이전 계획이 수립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서귀포시 1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신청기간 놓치면 지원 불가... 최저임금·숙소 제공해야

서귀포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수요조사에 나서고 있다. 시는 날로 심화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배정 기준)은 연도별로 ▷2022년 54농가·129명 ▷2023년 119농가·334명 ▷2024년 261농가·845명 ▷2025년 245농가·769명 ▷2026년 7월 기준 262농가·798명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수요조사는 농가(농업법인)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달라진 점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던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내년부터는 연 1회로 통합·운영된다. 때문에 이번 수요조사 시기를 놓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초청 범위도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 조정됐다.

고용 농가는 최저임금(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할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62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798명 배정을 확정, 순차적으로 일손 부족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공영주차장
5곳·161면 조성 완료
11월까지 무료 시범운영

제주시가 주차난 심화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5개소·161면을 조성해 오는 11월까지 향후 석 달간 무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6년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연동 2331-3, 용담2동 633-3, 오라2동 3030-3, 일도2동 354-9, 노형동 1289-6 등 5개소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161면을 조성했다.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주차관계설비 설치와 통합시스템 연계 등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12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유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제주 바다와 함께한 순간 3일 제주시 이호동 말등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음식점 칭찬해주세요” 9월 한 달 이벤트
200명 선정 탐나는전·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지급

제주시가 9월 한 달간 음식점 칭찬 이벤트를 벌인다.

시는 친절하고 정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정직한 가격, 따뜻한 마음’ 음식점 칭찬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정직한 가격, 따뜻한 마음’ 약속 캠페인의 후속 사업이다.

이벤트에는 제주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제주시 소재 음식점을 이용한 뒤, 제주시 누리집이나 음식점 입구에 부착된 ‘정직·친절 약속 스티

커’ QR코드(네이버폼)를 통해 음식점명과 칭찬 내용, 미담 사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또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제출된 미담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연말에 해당 영업주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가을 성수기·추석 맞아 곳곳서 할인·체험 행사
탐나오서 할인쿠폰 제공...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도

가을 여행 성수기와 추석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와 할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주관광공공플랫폼 ‘탐나오’에서 ‘더-제주 포시즌, 더 머무는 제주’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탐나오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숙박 최대 40%, 관광지·맛집·여행사 상품 최대 3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탐나오에 문을 연 제주시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 장터’에서도 특산품과 기념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관광사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관광 붙임’ 행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진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개 업체가 문화 행사를, 41개 업체에서는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업체들은 공연과 체험·참여형 프

로그램, 음식·입장권·체험권 할인 행사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추석 기간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한정 답례품과 추가 증정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석 한정 답례품 꾸러미 4종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제주감귤·흑돼지 꾸러미(흑돼지 가공품 1.1kg+하우스감귤 2.5kg) ▷수제떡 선물꾸러미(제주오메기떡·설기떡 등 18개입) ▷제주산 돼지고기 꾸러미(오겹살·얇다리살·돈가스 등 1.1kg) ▷제주 흑우 꾸러미(흑우 등심+국거리 700g) 등 4종으로 시장 판매가격보다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 200명에게 ‘제주 은갈치 세트’를 증정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학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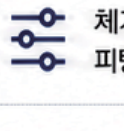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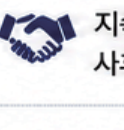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와이덱스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화북
무료주차 가능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